만남 위한 밥상, 밥상 위한 만남

(잠언 23:1~35)

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3.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만남 위한 밥상, 밥상 위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만남 위한 밥상, 밥상 위한 만남'
요즘 TV 프로그램의 대세는 먹방입니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요미식회, 삼시세끼, 한식대첩, 냉장고를 부탁해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백종원 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모두 밥상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교회나 사회에서 갖게 되는 온갖 종류의 만남은 설령 식사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만남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회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우선시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만남 그 자체를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밥상을 동원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사과할 일이 있어도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대화함으로써 훨씬 친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밥상은 만남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촉매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남을 위한 밥상이냐 밥상을 위한 만남이냐는 것입니다. 같은 상대에 대해서도 처음 만났을 때의 밥상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다보면 밥상을 위한 만남의 의미가 커져갑니다. 처음이거나 어려운 만남일수록 만남 자체가 우선이지만 일상에서의 만남은 밥상이 더 우선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맞선을 보는데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맞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만난 사람이 어땠는

지에 대해서 온 가족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어도 그 음식이 맛있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비싼 음식을 동원하는 이유조차도 본래 의미는 그것을 맛있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싼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상대에게는 관심이 없고 온 정신이 먹는 것에 집중한다면 맞선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아무리 음식 맛을 칭찬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밥상을 위해 나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은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만남과 밥상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관원'은 임금이나 고관대작 같이 내 삶을 지배하는 통치자를 일컫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나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통치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결코 앞에 앉은 사람보다 음식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3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나의 통치자가 주는 음식이 속이는 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 보았던 맞선 장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들이 내게 좋은 음식을 준 이유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렸으니 성의를 봐서라도 많이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초대한 임금님보다도 차려진 음식에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큰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객전도가 되어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말씀에서는 '속이는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임금님을 향하느냐, 귀한 음식들에 향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속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선 장소에서 비싼 음식들을 대접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방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사표현인 것입니다. 임금님이 나를 초대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몰두하라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차려진 음식에 몰입해서 상대방을 잊어도 되는 경우는 가족 같은 분들이 차려준 밥상뿐입니다. 그때는 음식에 집중해서 맛있게 먹으면 먹을수록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맞선 자리에서 혹은 임금님 앞에서 음식을 마음에 두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직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통치자와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임금님에게 초대 받은 자리를 비유로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산해진미를 차려놓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통치자에게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게 될 기회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있습니다. 육체의 위가 비면 굶주림을 느끼듯이 마음도 배부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음의 배가 불러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고 보람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는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금님 앞에서 음식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통해 배 부르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배우자는 산해진미로 비유될 수 있는 마음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식사가 만남을 원활하게 하듯이,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하는 훌륭한 산해진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4절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라고 했듯이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산해진미들에 마음을 쏟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산해진미 밥상 건너편에 앉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임금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임금님과의 관계를 더 원활히 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왕궁을 떠날 때에는 음식은 기억나지 않아도 임금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가득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로 마음을 배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 혹은 재물을 비롯한 세상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마주하는 동안에는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필요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판단과 생각을 구하고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발생시키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있어야 하고 행동하고 말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은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통치자의 초대를 비유로 삼아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만남과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음식으로 임금님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촉매제입니다. 음식 자체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임금님에게 몰두해야만 합니다.

앞서 요새 TV에서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TV에 비유하자면 먹방 프로그램이 아닌 만남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역할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가 무능하냐 유능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못생기고 무능하더라도 배우자는 내게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 멋지고 유능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 내 판단과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무능하고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일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하게 밀착시켜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잘했다고 여길 때보다 못했다고 여길 때에 생각할 거리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된다면 못난 배우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임금님과 식사를 마친 후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임금님에 대한 기억만이 가득하게 남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면 그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과 생각으로 배우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최선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내게 판단과 생각의 필요성을 주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필요성을 따라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느덧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초대받아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과 밥상은 함께 있지만 그 우선순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봅니다.
한 사람이 왕의 초대를 받아서 진수성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왕은 무시하

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것이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바에는 목에 칼을 대서라도 음식을 참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으로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배우자로 만족을 얻으려 할 때에 목에 칼을 대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배로 넘어가는 마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삼켜서 만족하려는 마음의 식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건강으로 만족하려고 하려 할 때에 십자가 칼을 들이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한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면 비록 주름진 얼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욕하던 사람이 볼 때에도 가장 완벽한 나로써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임금님 앞에 차려진 산해진미입니다. 이것을 먹고 싶어서 마음의 침이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밥상을 차려 놓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는 내게 관련된 모든 대상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돈은 합당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히는 삶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가 무엇이기에 육체를 비롯하여 가족들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요. 산해진미를 앞에 두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이런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